

보도 일시	2022. 10. 6.(목) 12:00		
담당 부서	국가기록원	책임자	과 장 조이현 (042-481-6247)
	기록협력과	담당자	연구관 임신영 (042-481-6253)

국가기록원, 세계 디지털기록 전문가와 첫 국제학술행사 개최 - 10월7일(금), 부산에서 '제1회 국제기록관리포럼' 열고 디지털 기록 생산 관리체계 공유 -

- 각국의 세계 디지털기록 전문가가 함께 모여 디지털 기록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 국가기록원은 10월 7일(금),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(APEC하우스)에서 『제1회 국제기록관리포럼(1st International Forum on Archives, IFA)』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기록관리포럼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며, 세계의 기록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기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,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1회 토론회의 주제는 ‘디지털 기록의 생산·관리 및 활용’으로, 급변하는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속에서 세계의 기록전문가들이 직면한 공통된 고민과 문제점을 공유하고, 대응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.
 - 400여 명의 국내·외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온라인과 현장이 병행되는 혼합형(하이브리드)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여한다.
-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록 생산 관리 사례가 발표되며, 이어서 캐나다, 영국, 뉴질랜드, 스웨덴 등의 디지털 기록관리 전문가*들이 각국의 사례를 발표한다.
 - * 스테판 클락(Stephen Clarke)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장, 존 셰리던(John Sheridan) 영국 국가기록원 디지털 국장, 톰 스미스(Tom Smyth) 캐나다 국가기록원 디지털 보존 관리자, 고란 사무엘손(Góran Samuelsson) 스웨덴 중부대학교 교수, 이철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서기관

- 국가기록원은 국제토론회에서 공유된 각국의 우수사례들을 반영하고, 국제학술대회를 지속 개최해 디지털기록 정보 관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
-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“정부의 업무처리와 서비스 과정에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(IT) 기술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방대한 디지털 기록정보가 생산되고 있고, 이러한 디지털 형태의 기록정보들은 기록물관리 기관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덧붙여 “이번 국제 토론회를 통해 여러 국가의 디지털기록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도출된 디지털 기록정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함으로써 각국의 디지털 기록관리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